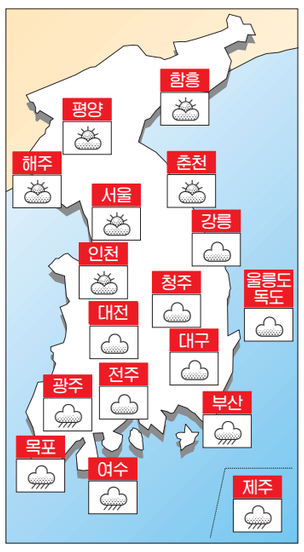
장마 오후 늦게 시작

6월 24일 (음 5월 29일) 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한두차례 비가 오겠다.

광 주	20~26℃
목 포	20~24℃
여 수	20~25℃
완 도	19~24℃
구 례	20~26℃
해 남	19~25℃
장 흥	19~25℃
고 흥	19~26℃
순 천	20~26℃
영 광	20~25℃
진 도	19~24℃
전 주	20~28℃
남 원	20~28℃
정 읍	20~28℃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1.5m
서해남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2.0m

▲해뜸 05:19 ▲해짐 19:51
▲달뜸 03:29 ▲달짐 18:52

목포 밀물 01:04 12:56 썰물 06:28 18:20 여수 밀물 07:51 20:38 썰물 02:01 13:5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날 씨						
최저/최고	20/24	20/26	19/28	20/25	20/24	20/26

주말 휴일 최고 30㎜ 장맛비

주말인 24일 광주·전남은 오후 늦게부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5~3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장마전선은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으며, 조금씩 북상하고 있다.

장맛비는 26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장마전선이 다시 남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다소 소강상태에 들었다가 28일부터 다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주말과 휴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26도, 아침 최저기온은 20도로 예상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kr

학교급식 위생관리 허점

조리장·영양사 기준 못미쳐

사상 최대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위생관리와 운영 시스템 등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체계='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장은 매 급식때마다 교육감은 연 2회이상 위생 안점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모두 50개 항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지난 2004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 잔류농약 등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안정성 검사결과 불량식품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납품업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지역 보건소 주관으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은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설사 환자 등 집단발생을 은폐 축소하거나 보고 지연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책받는다.

교육당국은 위탁급식 계약서에 식중독 발생시 계약해지 조항을 넣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사고를 낸 업체 명단과 원인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고 있다.

◇운영상 문제점=단기간 내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만 갖춘채 2003년부터 전면급식을 확대하면서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식약청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위해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의 구분, 조리장 온도 28도 이하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정원 확보가 어려워 영양사의 35%, 조리사의 52.8%, 조리원의 95.8%를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은 조리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집단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식재료 공급업 및 전처리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의 사각 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kr

■ 6·25 56돌… 4父女 군인가족 '이색만남'

"아빠 멋진 훈련 모습에 반했죠"

아버지는 특전사 원사. 큰딸은 기갑부대 중위. 둘째 딸 보병 대위. 셋째 딸 '귀신 잡는' 해병대 소위. 담양 출신 4부녀(父女) 군인가족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 자리에 모였다. 3부자(父子)나 쌍둥이 형제 등의 군인가족은 있었지만, 아버지와 세 딸 모두가 현역 군인인 경우는 창군(創軍) 이래 처음이다.

광주의 향토사단인 육군 31사단(사단장 이봉원 소장)이 23일 부대에서 개최한 '이색 만남의 날' 행사장. 전국 곳곳에서 모인 군인가족 14명 중 3명의 여성장교에게 둘러싸인 한 나이 많은 부사관이 눈에 띄었다. 담양 황금박쥐부대 통신지원대 박두봉(53·ROTC 48기)원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성들은 다름 아닌 딸들이었다.

큰딸 정자(29·여군 48기)씨는 과거 '맹호부대'라고 불렸던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인사관리장교(중위). 경기도 가평에서 달려왔다. 베트남 전에서 용맹

담양 출신 4부녀(父女) 군인가족인 박두봉 원사와 세 자매가 23일 광주 31사단에 한데 모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고의 군인이 되겠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숙(둘째) 대위, 박 원사, 박경숙(셋째) 소위, 박정자(첫째) 중위. /위직량기자 jrwi@kwangju.kr

담양출신 박두봉원사의 세 자매

을 떨친 부대의 대원답게 씩씩했지만, 지난해 결혼한 '새색시'다.

둘째 딸 정숙(28·여군 47기)씨는 31사단의 교육훈련장교(대위)다. 세 자매 중 가장 먼저 군인의 길을 꿈꿨고, 임관도 제일 빨랐다. 어렸을 때부터 인형 대신 아버지의 철모를 쓰며 놀았다고 자매들은 전했다.

셋째 경숙(25·사관후보 100기)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예부대에 있다. 해병 2사단 통신소대장(소위)으로 근무 중이다. 언니들이 모두 육군이어서 해병대를 택했다고 한다. 해병대 첫 여성 '스타'가 되는 것이 꿈이다.

내년이면 34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는 박 원사지만, 아쉬운 마음은 없다. 평생을 바쳐 지킨 조국을 딸들이 책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고 3인 막내아들 종민(18)군도 사관학교 진학 꿈을 갖고 있어,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군인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아버지는 딸 키우는 재미를 하나도 못 느꼈을 거에요. 저희가 좀 '터프'해야죠."

정자씨 등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제복에서 풍겼던 땀 냄새를 맡으며 군인의 꿈을 키웠다. 여름철 피서지는 항상 해남에 있는 황금박쥐부대 해상 훈련장이었다. 아버지가 혹독하기로 소문난 특전사 훈련을 할 때 딸들은 모래사장에서 흙장난을 하며 지켜봤다.

전남대 행정학과(정자)와 조선대 전산통계학과

셋째는 해병대 통신소대장

(정숙), 전남대 경영학과(경숙) 등 지극히 '평범한' 과를 졸업한 그녀들이 군대를 택한 것은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멋진 훈련 모습' 때문이었다고 한다. 부녀(父女)는 31사단의 배려로 모두 4박 5일간 특별휴가를 떠난다. "휴가 중 함께 뭐 할 것이냐"고 물으면서, "여행" "월드컵 거리응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 등의 답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 년들은 엉뚱하게도 "이삿짐을 나를 것"이라며 웃었다. 큰 언니 정자씨가 충청도 괴산의 37사단으로 발령이 나자 동생들을 '짐꾼'으로 차출한 것이다.

세 자매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며 "아버지가 지켜 온 군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군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kr

오늘 6·25전쟁 제56주년 기념식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송계축)은 24일 6·25 전쟁 제 56주년을 맞아 오전 7시부터 광주 상무시민공원~여성발전센터~금호4차아파트~상무지구 버스종점~상무골프장~상무소각장을 걷는 '6·25 계기 6.25km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전남 재향군인회'(회장 대행 이연득)도 이날 오전 11시 광주공원 시민회관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송계축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기관 단체장과 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제 5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kr

급식사고 원인 '노로 바이러스' 추정

감염땐 설사·위경련 증세

서울·인천 등의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급식 사고의 원인이 '노로 바이러스'(Noro virus)로 보인다고 서울시가 23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분변 가검물에 대해 1차로 스크리닝을 한 결과 노로 바이러스가 다수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분변 가검물 1천500여 건을 의뢰받아 그 가운데 180여 건에 대해 스크리닝을 한 결과 25%에서 노로 바이러스를 찾아냈다. /연합뉴스

▲노로 바이러스=급성 설사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성 바이러스. 조개류 등 오염된 식품이나 물, 사람과의 접촉으로 전염된다. 감염되면 구토·설사·위경련·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관련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채변이나 구토물에 남아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갔다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8천여명이 발생,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도 2003년 14건(1천442명), 2004년 13건(922명)의 환자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식이 중단된 23일, 미처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광주 인성고 학생들이 교내 매점에 몰려 컵라면으로 점심을 대신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kr

집단 식중독 사건 "학생·학부모 큰 불편"

광주·전남 7개校 기숙사 퇴실·자율학습 중단

저소득층 자녀 825명 인근 식당서 점심 배달

CJ푸드시스템에 급식을 위탁했다가 식중독 파동으로 단체급식이 중단된 광주·전남 7개 중·고교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 측은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상당기간 학부모와 학생 모두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도시락 싸와라=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23일부터 단체급식이 중단된 학교 학생들에게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고 정부의 급식실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다.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저소득층 중식 지원자 825명의 경우 학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 점심시간 때 전달토록 조치했다.

급식이 중단된 중·고교의 중식 지원자는 광주의 경우 ▲숭신공고 343명 ▲보문고 106명 ▲수피아여고 79명 ▲인성고 34명 ▲숭의중 63명 등 광주 625명이다. 전남은 ▲정명여중 110명 ▲정명여고 90명 등 200명이다.

양 교육청은 또 현재까지 이 지역 학교의 경우 설사·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한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율학습 단축=도시락을 채 마련해오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 매점에서 빵과 우유 또는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사먹고 있다. 광주 수피아여고는 밤 10시까지 진행해온 야간 자율학습을 희망자에 한해서만 공부를 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하교시간은 종전 밤 9~10시에서 오후 6시로 앞당겨졌다.

인성고도 1·2학년의 경우 자율학습을 잠정 중단했다. 인성고는 또 학교기숙사 생활을 해온 3학년 100여명을 이날부터 당분간 집으로 돌려보냈다.

목포 정명여고 관계자는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당분간 급식 재개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자 수 1천709명=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단체 급식을 받은 뒤 식중독이 발생한 서울·인천·경기 지역 학교는 25개교(급식소 기준 19곳)이며, 환자 수는 1천7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는 문제의 급식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는 68개교 7만1천 명의 학생에 대해 잠정적인 급식중단 조치를 내렸다.

교육당국은 이번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급식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천 및 수원 물류센터에서 학교급식소에 일괄 공급한 식재료 가운데 돼지고기가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kr

"학교급식 직영전환"

전교조·학부모단체 등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의 직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위탁급식 체계에서는 인건비와 시설비 등이 고정돼 있어 이윤을 내기 위해 싼 재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위탁 급식체계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 1만여校 급식실태조사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식중독 추정 급식사태와 관련해 23일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주부터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급식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급식업체의 공급을 잠정 중단하고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경우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또 급식 납품 방식을 가급적 위탁방식에서 학교직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나원참 〈6861〉 김종두

KAIST 총장에 서남표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이끌 새 수장으로 서남표(70·사진) 미국 MIT대 석좌 교수가 낙점됐다.

KAIST는 23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갖고 신성철 KAIST 교수, 강성모 미국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 공대 학장 등 3명의 후보 중 서 교수를 신임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7월14일 취임식을 갖고 향후 4년 간 KAIST를 이끌게 된다. /연합뉴스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어제 전국 첫 개장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2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장됐다.

이날 개장식은 지역 인사와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선언과 상가협회 친절결의문 낭독,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고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는 모래조각 및 수상스키 시연이 펼쳐졌고 고동 및 조개 줍기, 모래사장 건강달리기, 관광 완도 사진전시, 월드컵 물속 응원전, 도립국악단 공연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전남도는 개장에 맞춰 해수욕장 텐트촌 80여 동을 설치하고 주차공간도 기존 800대에서 1천200대 규모로 늘렸다. 전남도는 특히 올해 신지 연륙교가 지난해 12월 개설됨에 따라 완도읍에서 뱃길로 40분이던 소요시간이 5분으로 단축돼 어느 해보다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kr

야적 양파 트럭으로 훔친 30대 영장

쌍나팔

○…함평경찰은 23일 함평군 일대를 돌며 총 3차례에 걸쳐 농민들이 야적해 놓은 양파 등 200여만원의 농산물을 훔쳐온 혐의(절도)로 이모(30·함평읍)씨를 붙잡아 조사 중.

○…이씨는 지난 22일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백련마을 앞 길에서 이 마을 임모(58)씨가 길가에 야적해 놓은 양파 70망(시가 56만원 상당)을 훔쳐 1t 트럭에 싣고 가던 중 순찰 중인 112 순찰차에 발견되자 함평군 나산면 방향으로 2km 이상을 도주하다 막다른 길목에서 덜미.

○…경찰은 "농산물 절도는 한 해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농민들을 울리는 가장 나쁜 범죄"라며 "자신도 농사를 지으면서 농산물 절도를 해 온 이씨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